

열린 마당

참회

시론

불교 세계화 기초부터 다시

세계무대에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계화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우수열패(優勝劣敗)의 생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스포츠나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으나 평화와 자비를 지향하는 불교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9세기 이래로 서양의 문물제도와 사상과 종교가 우리나라에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간 개화(開化)나 국제화니 하면서 새로워 보이는 정책들이 표방되었지만 알고보면 결국 서양인들의 문화개방 요구에 호응하여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만 끝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서구화의 대세 속에서 서양의 문물제도와 사상과 종교는 갈수록 득세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는 갈수록 몰락(墜落)해 가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그동안 일부 불교인들이 저지른 추태를 식상할 정도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교가 앞으로의 세계문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일까? 그러나 불교사상이 인류문화의 정수로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라면 그 정신을 현대사회에 한 번 더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석가모니 당시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당시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설파했던 법문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가 앞으로 세계문명을 주도하려면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불우한 소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고승들의 가르침 널리 펴야

이들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보다 이들 문제를 품어 안아들이는 종교가 보다 세계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 해결에 앞서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기초작업이 튼튼해야 한다. 불교정신을 현대사회에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불교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불교계의 교리 연구는 일본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불교학계는 층이 두텁고 넓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려면 우리나라 고승들의 지식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원효, 의상, 원측, 경홍, 지눌 등 고승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없이 불교를 세계화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개인이 수행(手工業)식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 강 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

종단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교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는 자료제공 문제도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생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서적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역경사업이 크게 확충되어야 하며, 전자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역경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연구되어 저술되고 번역된 자료들은 각각 학교교육을 통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비하여 불교계통의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불교 종단에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자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만이라도 적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대학교 등 각급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불교정신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고승들의 정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세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뿐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인 모두가 현대사회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삼구부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열연(열연) 연구와 저술, 번역과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뜻을 간절하게 세운다면 현대사회에서 불교정신이 또다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지식 수용 절실

그렇지만 우리가 석가모니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하여 그들의 설법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원화(多元化)된 기술정보사회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전문화되어 있다. 오늘날 제기된 어떤 문제도 전문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그들 기술과 지식을 인류사회의 목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없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문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현대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발달한 학문의 성과를 외면하는 종교보다 그들을 수용하는 종교가 더욱 더 세계화될 것이다. 물리학·생물학·수학을 알으로써 물리학·생물학·수학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통계학·경제학을 알으로써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속공학·전자공학을 알으로써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내일은 깊은 반성에서

사설

사실이 많다하고 터지는 엄청난 대형사고의 충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째 이런 일이"를 연발 뇌까리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와 호수 도처에서 연일 터지는 참사로 인하여 개혁과 세계화를 내세우고 있는 문명정권의 국정관리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성수대교의 붕괴, 공무원들의 세금도둑질,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대참사, 인간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총약범죄... 이러한 엄청난 사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지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허무감과 좌절감을 주체할 길이 없다. 그야말로 군사문화시대의 신통덕(?)이 모두 소진된 탓인가 아니면 유형, 무형의 「기초공사」가 너무 부실한 탓인가. 어쨌든 불행한 일들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모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또 어디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당국은 각종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부실공사, 안전관리 태만, 사고대처의 원시성 등 잘못된 원인과 고질적인 병폐를 산산이 가려내고 과학적인 진단과 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대적인 행정조직의 개편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

리 모두의 깊은 참회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참회와 반성이 없는 구시대적 만성적인 사고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회를 통한 우리 모두의 정신적 사고와 의식의 개혁이 없이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밝은 내일을 열 수 없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여러가지 악업을 짓고서도 숨겨서 뉘우침이 없다면 마음대로 부끄러워 하지 않고, 인과업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리 훌륭한 의사가 달려들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악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음을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여기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자. 물론 국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권력자들, 많이 가진 자들처럼 혜택받은 중생들이 더 많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를 막지 못한 잘못을 후회하면서 참회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부처님의 자자와 포살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참회가 생활화된다면 한층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과 대중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어 청정성과 정직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세계화의 구호를 외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민족의 주체성, 자존심부터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만이 내일이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밝은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저무는 94년을 되돌아 보면서 한해를 돌아켜 참회하는 것은 불자다운 삶의 자세일 것이다.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천수경」 속의 참회문과 「백팔대참회문」을 간추려 읽으면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자.

천수경

산 목숨 주인 죄 이제 참회하옵니
남의 것 훔친 죄 이제 참회하옵니
삿된 음행 범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거짓말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꾸밈말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이간질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나쁜 욕심 행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욕심부린 증한 죄 이제 참회하옵니
성질부린 나쁜 버릇 이제 참회하옵니
어리석은 생각들 이제 참회하옵니
오랜 세월 방심 죄 한 생각에 없었지니
마른 불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악은 본래없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을 비울 때 죄악 또한 사라지네
죄악도 마음도 모두 다 사라지면
이것을 진실로 참회라 이름하네.

백팔대참회문

은 세상의 모든 불 세존과 항상 사바에 계시옵는 모든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로써 죄회를 거두어 주소서. 제가 이 세상과 전생 그리고 아득한 옛적부터 많은 죄를 저 스스로 짓기도 했고 혹은 남을 시켜 짓기도 했고 또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불람이나 스님 도량 등에서 스스로 충치기도 했으며 혹은 남을 시켜 충치거나 남이 충치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다섯가지 무간죄를 저 스스로 짓기도 하고 남을 시켜 짓기도 했으며 또는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며 열가지 악한 행을 제가 스스로 짓기도 했으며 혹은 남을 시켜 짓기도 하고 또 남이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모든 복덕 남김없이 함께 나누며 부처님을 청정한 공덕으로써 무상 지혜 이루기가 원이옵니.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중생의 가장 훌륭한 무량한 공덕을 제가 이제 지성으로 귀의합니다.
넓고 크고 수승한 지혜심으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깊이 믿사오며 보현보살 요신 행과 요신 원으로 빠짐 없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예로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람·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것임에 제가 이제 모든 죄 참회합니다.

부처님 찬란하고 공양한 공덕,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법문 설하시길 청하온 공덕, 중생과 불도에 모두 회향합니다. 원하옵니, 수승한 이 공덕 부처님 법계에 회향하오며 진리와 사상(事相) 불법과 승가(僧伽) 법계의 세상이 서로 막힘없는 상태인,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의 바다, 제가 이제 남김 없이 회향하오니 중생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잘 못보고, 트집잡고, 비방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법에 집착한 이 모든 죄가 낱알이 소멸되고 생각 생각 큰 지혜 온 법계에 널리 퍼져, 중생들 한결같이 제도되어지이다.

이와 같이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까마득히 잊기도 했고 어렵듯이 생각나기도 하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귀나 축생 등 갖가지 악도에 떨어지거나 번지에 미천하게 태어날 이러한 죄를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제 불세에서는 죄회를 다 잘하시오니 보살피시고 거두어 주소서.

거듭 불 세존께 아뢰옵니. 마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공덕 회향하듯이 저도 역시 공덕을 회향합니다. 지은바 모든 죄를 참회하오며

현대만평

박구원



多死·多難했던 한해를 참회하며...



불기 2539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 1차 : 95. 1. 6~1. 15. (9박 10일)
-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불교 성지순례 10일	
요금	₩ 1,240,000
비행	델리-인도(비행)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야식 8회/기타식 3회
호텔	1일 2인 1실/기타 1인 1실/비행기 1인 1실

인도 문화여행 10일	
요금	₩ 1,400,000
비행	델리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O-비행기)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야식 8회/기타식 3회
호텔	1일 2인 1실/기타 1인 1실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9000은 별도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100,000 한일은행 009-03-01106 (주)한진관광
- 정무인기 조건임.



서울시 중구 불광동 132-4

예약문의: 서울 (02) 726-5763 대전 (042) 252-3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5) 745-3070 광주 (062) 228-0041
726-5763~4 5771.73 제주 (064) 42-7277